

## 1. 마한시대

마한은 주지하다시과 78개의 소국(小國)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동부지역에는 어떤 소국이 위치해 있었을까. 이를 대략적으로나마 밝혀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불사분사(不斯墳邪)·불운(不雲)·원지(爰池)·초리(楚離) 등의 소국이 존재했다고 한다.<sup>1)</sup>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백제지역은 당에게 점령되면서 1부 7주의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그 중 전라남도 동부지역은 분차주에 해당되었다.<sup>2)</sup> 그리고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열거된 78개의 소국은 아무런 규칙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 즉 북쪽에서 남쪽으로 차례대로 나열되었다고 가정하였다.<sup>3)</sup> 남쪽인 전라남도 동부지역은 가장 끝에 나열된 국가로 비정되었다. 이것이 얼마만큼 타당한 추리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동부지역에 마한 소국 중 4~5개의 소국이 존재했던 것은 확실하다.

소국연맹시기 영산강 유역의 역사는 대형 옹관묘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 당시 사회상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순천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나 대표적인 유적·유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에 순천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어 지명을 통해서나마 순천지역의 역사를 재구성해볼 수 있다. 먼저 순천지역과 인근지역의 지명을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찾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分嶺郡 本百濟分嵯郡 景德王改名 今樂安郡 嶺縣四  
忠烈縣 本百濟助助禮縣 景德王改名 今南陽縣  
兆陽縣 本百濟冬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薑原縣 本百濟豆朕縣 景德王改名 今荳原縣  
栢舟縣 本百濟比史縣 景德王改名 今泰江縣  
寶城郡 本百濟伏忽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嶺縣四  
代勞縣 本百濟馬斯良縣 景德王改名 今會寧縣  
季水縣 本百濟季川縣 景德王改名 今長澤縣  
烏兒縣 本百濟烏次縣 景德王改名 定安縣  
馬邑縣 本百濟古馬●知縣 景德王改名 今遂寧縣  
昇平郡 本百濟欲平郡 景德王改名 今因之(一云昇州) 嶺縣三  
海邑縣 本百濟猿村縣 景德王改名 今麗水縣  
晞陽縣 本百濟馬老縣 景德王改名 今光陽縣  
盧山縣 本百濟突山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이 마(馬)자가 들어간 지명이 3개나 보인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마자가 들어간 지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康州 天嶺郡 利安縣 本馬利縣  
漢州 堅城郡 本高句麗馬忽郡

1)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시론」, 『고조선사·삼한사연구』, 1989.

2) 천관우, 위의 논문, 404쪽.

3) 천관우, 위의 논문, 375쪽.

朔州 奈靈郡 玉馬縣 本高句麗古斯馬縣 景德王改名 今奉化縣  
 熊州 嘉林郡 馬山縣 本百濟縣 景德王改州郡名 及今并因之  
 伊山郡 本百濟馬尸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全州 金馬郡 本百濟金馬渚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任實郡 馬靈縣 本百濟馬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주·삭주·한주에 각각 한 곳씩 있으며 웅주 2곳, 전주 2곳이 찾아진다. 무주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마사량현(馬斯良縣)·마려지현(馬·知縣)·마로현(馬老縣) 3개를 찾을 수 있다. 즉, 마자가 들어간 총 10개의 지명 중 옛 마한의 영역에서 7개가 보인다. 이 사실은 마한의 국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국호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백제는 백가(白家)가 도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라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sup>4)</sup> 진한의 국호는 “고지망인(古之亡人)이 진역(秦役)을 피하여 한국(韓國)에 이르게 되었다.”<sup>5)</sup>라고 한 데서 연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호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볼 때 마한인들이 말을 대단히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고 추측된다.

여기에서 나주지역의 웅관묘에서 발견된 유물 중 기마와 관련된 유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원래 마한에서는 기마술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다. 4세기 이전의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진 『삼국지』 위지 동이전 진한전에 따르면 마한인들은,

우마를 탈 줄 몰랐으며 우마는 모두 장례에 사용되었다. 영주(瓔珠:구슬목걸이)를 재보로 삼았다.

라고 하여 기마술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즉, 마한인들은 우마를 타지 않고 단지 장례에만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들을 고려해볼 때 마한인들은 우마를 대단히 신성한 것으로 여겼던 까닭에 주변 여러 나라와는 달리 말을 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백제는 온조대부터 기병이 있었다고 한다. 백제의 기원이 부여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일찍부터 기병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 대형 웅관묘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여겨지는 가야의 여러 고분에서는 마구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기마를 사용하였는데 마한지역만 기마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말 승배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소국연맹시기 순천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마한이 언제 백제에게 병합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다음 사료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369년(근초고왕 24)을 그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에 병력을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혜진(古·津)에 이르러 남쪽의 오랑캐 침미다례(枕彌多禮)를 쳐부수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의 4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荒田別)·목라근자(木羅斤資) 등이 의류촌(意流村)에서 함께 서로 만나 기뻐하고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오직 천웅장언(千熊長彦)만이 백제왕과 함께 백제국에 이르러 벽지산(辟支山)에 올라 맹세하였다.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라 함께 반석 위에 앉아서 백제왕이, “만약 풀을 베어 자리에 앉는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나무를 베어 자리에 앉는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그런 까닭에 반석에 앉

4) 『삼국사기』 권4, 지증마립간 4년 10월.

5) 『삼국지』, 위지 동이전 진한전.

아 맹세하는 것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에 지금 이후 천추만세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늘 서쪽 번국이라 칭하여 봄·가을로 조공을 바칠 것이다.”라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천웅장언만을 데리고 도읍에 이르러 예의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역시 구저(久低) 등으로 보좌하여 환송하였다.(『힐본서기』 권9, 신공기 49년 3월)

많은 사람들이 위 사료에 보이는 지명에 주목하였다. 말송보화(末松保和)는 그의 저서인 『임나홍망사』에서 침미를 강진군 일대 혹은 제주도, 고혜진을 강진의 한 포구인 고계, 비리를 전주 혹은 나주, 벽중은 전북 김제, 포미지는 공주, 반고는 나주의 반남면, 의류촌은 백제의 수도 위례성이나 전북 무주산성 또는 전북 고부군의 우금암 산성, 벽지산은 김제에 있는 어느 산, 고사산은 전북 고부군의 어느 산으로 각각 비정하였다. 즉, 위 사료의 지명을 전라남북도로 비정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 사료를 일본이 한때 한반도 남부지역 일대를 장악하였다는 소위 임나일본부설의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말송보화는 위 사료에 보이는 지명과 유사한 발음을 갖는 지명을 『참국사기』 지리지에서 찾아 이를 현재 위치로 비정한 것이다. 사료가 워낙 적은 관계로 이와 같은 방법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모든 지명을 그러한 방법으로 비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예를 들면 청계라는 지명은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적어도 2군데 이상 찾아볼 수 있다. 즉, 비슷한 지명을 갖는 곳을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위 사료에 나오는 지명을 이병도는 일본인 학자들처럼 전라남·북도 지역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이병도는 위 사료가 갖는 의미를 근초고왕의 전라남·북도 점령으로 이해하였다. 우선, 『힐본서기』 신공기 기사를 369년으로 수정하였다. 이어서 이 사료를 “필자의 견해로는 근초고왕 부자의 이 방면 경략으로 인하여 지금의 전라남도 지역이 완전히 백제의 소유가 되자 왜국과의 정식 교통이 이 방면 통로를 통하여 처음 열리게 된 것과 또 왜사(倭使)의 제1차 내도(來都)를 계기로 여러 가지 선린우호의 책을 청하여 서로 영구히 우의를 맺기로 맹약한 것이 위와 같은 형식의 설화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sup>6)</sup>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위 사료의 이해방법만 제시했을 뿐 그 이해의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위 사료는 우리나라의 고대사나 일본고대사, 더 나아가 고대 한일관계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인 만큼 새로운 사료 비판방법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료에서 전라남도 동부지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 있다. “이에 병력을 서쪽으로 돌려 고혜진에 이르렀다.”는 부분이다. 이것이 백제 병력의 이동방향을 나타낸다고 할 때 백제 병력은 보성강 유역에서 영산강 유역으로 이동하였던 셈이 된다. 즉, 백제가 전라남도 남부지역을 점령할 때 동부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서쪽으로 이동해간 것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동부지역에 거대한 고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된다. 현재까지 정밀한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영산강 유역의 웅관묘와 같은 거대한 고분이 발견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고분이 발견되지 않는 사회적 조건으로 백제에게 일찍 점령되었던 점도 한 번쯤 고려해볼 사항이다.

전주까지 진출한 백제세력이 나주 방면 영산강 유역의 웅관묘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남원 방면으로 빠져 전라남도 동부지역인 순천 쪽으로 방향을 옮겨간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비슷한 형세는 후삼국기 건훤의 후백제 상황에서도 찾아진다. 나주지역이 왕건에게 항복하자,

6) 이병도, 『근초고왕 척경고』, 한국고대사연구, 1976, 513쪽.

견훤은 전주로 세력의 중심지를 옮겨 나주지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천에 그의 사위였던 박영규(朴英規)를 포진시켰다. 백제 역시 나주 진출이 어려워지자 대신 동부지역인 순천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의외로 빠른 시기일지도 모른다.